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희망·회복·포용·도약의 해 될 것
주거문제 어려움 국민들께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 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한 뒤 2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한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한 뒤, “올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을 전망한 뒤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나신 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사과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투기 차단’에서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복안으로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둔 한국판 뉴딜, 소프트파워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으로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방역·보건 대화 구상’을 재확인한 것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경제 관련 내용으로 채웠다. 신년사에 ‘경제’가 29번 등장하는 반면, 북한 관련 내용은 총 40대 분량의 신년사에서 4대 줄 조금 넘는 정도에 그쳤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 입찰 잠음 ▶5면

2021 새 설계 영암군·나주시·고흥군 ▶11~13면

KIA 양현중, 해외진출 어떻게 되거나 ▶22면

발목 잡힌 아특별법...길 잃은 문화전당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이원화
행정력 낭비·올 사업 중단 위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늦어도 이달 임시국회까지 개정안이 통과돼 문화전당 지위를 국가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 문화계와 시민들은 허탈

감에 빠졌다. 또한 전당을 ‘문화발전소’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허브’로 만들겠다는 당초 장밋빛 청사진도 빛을 바랬다는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화 체제에서 오는 행정력 낭비와 올해 사업 중단 위기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문화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아특별법 개정안 처리마저 지연돼, 문화전당의 신규 사업 추진도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발생했다. 문화전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 주요 사업과 전당의 주 업무인 창·제작도 당분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현재 여러 상황은 좋지 않지만 과도기적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내 불용액 최소화 등 사업 추진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원 관계자도 “이번 아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문화원 등 조직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외부의 요인 때문에 본질적인 콘텐츠 부분에 신경 쓸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강 한파 못 견디고... 50년만의 최강 한파가 들이닥친 11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의 송어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동사해 물 위로 떠오른 송어를 건져 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군 양식장 송어 1만여 마리 폐사 최강 한파에 전남 농수산물 피해 속출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가 지속하면서 전남지역 양식장과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농작물의 경우 한파가 지난 후에도 그 피해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전체적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해제면의 양식장 1곳에서 1만여 마리의 송어가 집단 폐사했다. 지난 6일 시작된 최강한파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첫 양식장 피해 신고다. 이곳 양식장 면적은 약 2.95ha로 모두 2만50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폐사 양

이 더 늘어날 수 있어 행정당국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바다 수온이 4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양식장 어가 피해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작물이 어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까지 전남도는 도내 27개 농가 132동의 농작물 한파 피해를 접수했다. 구례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24농가의 128동 10ha에서 피해가 발생했

고, 나주에서는 딸기 농가 1곳 2동 0.2ha에서 동사 피해가 났다. 나주의 고추 재배 농가 2곳 0.2ha에서도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한파 피해가 우려되는 농자·유자·배추·양파 등의 작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들 작물은 속성상 한파가 지난 후 피해 현상이 드러나는 만큼 작물 상태를 면밀히 지켜보며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육내 상수도관 동결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안 가거도 일부 주민들에게는 전남식수 100박스를 공급하고 이날 중으로 복구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수중인 진도 4개 읍면 4608세대에 대해서는 식수 7만8000병, 비상급수차 5대를 공급하는 한편 긴급급수조사를 실시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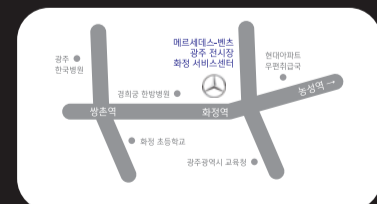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평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 (마해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안대로 516 (수원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이원대로 603 (백갈매 205호 동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45-10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동로 520 (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4M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2도 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M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년:13,2도 심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0,2도 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년:10,2도 심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연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외에도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